

# 무주 '마을로 가는 축제'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인 25일~7월 2일까지 13개 마을서 열려

무주군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연계한 마을로 가는 축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위해 무주를 찾은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폭넓은 즐거움을 제공하고 또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달 25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 무주읍 서면마을 등 13개 마을에서 다양한 체험(음식 & 숙박)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무주읍 앞삼마을 '복숭아가 익어가는 섬마을(자전거 트레킹, 낚시 등)', 체험, 서면마을 '우리 마을엔 도깨비가 산다(산다리 체험, 연잎 밥 등)', 무풍면 승지마을 '와일드푸드(농장체험, 시골밥상 등), 설천면 호룡마을 '호룡불 아쿠아리움(꽃차 차우, 산채비빔밥 등)', 삼도봉 마을 '삼도가 만나는 굽이굽이 산촌체험(삼림욕, 시골밥상)', 적상면 괴목마을 '조선왕조실록(적상산사고)을 지키는 사람들 이야기(넙쿨바구니 만들기, 3색 칼국수 등)', 치목마을 '위험한 먹거리 체험(삼베짜기, 꽃차 등)', 내장마을 '구불구불 재 넘어 하늘목장(산양 먹이주기, 시골밥상 등)을 준비한다.

안성면 두문마을 '낙화놀이(포교버섯탕수 등)와 함께 하는 '불꽃, 비빔과 함께 사라진다', 명천마을 '자연의 소리 백색을 테라피(기체조, 시골밥상 등)', 진원마을 '사그라사그락 고추의 변신(장류체험, 냉 · 온 국수 등)',



무주 마을로 가는 축제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연계해 25일부터 7월 2일까지 8일간 무주읍 서면마을 등 13개 마을에서 진행된다.

죽장마을 '그늘 한 자락과 바람의 여유(대나무 부채만들기, 오보도 주먹밥 등)', 수리마을 '블루베리 따고 수영장에서 즐기는 물놀이(블루베리 따기, 시골밥상 등)를 즐길 수 있다.

무주군청 마을만들기사업소 김오수 농촌관광 담당은 "방문객들이 농·산촌지역인 무주의 특성과 전통문화, 그리고 무주사람들의 정을 듬뿍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코레일과 협력해 진행되는 농촌관광프로그램과 주말이벤트, 농촌관광투어에는 4개 마을이 참여한다.

농촌관광프로그램은 영동역을 출발해 마을체험(무주읍 서면, 안성면 두문, 설천면 호룡마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관람(태권도원), 그리고 다시 영동역까지 가는 일정이며 주말이벤트(당일 4,900원(체험, 교통비 포함) / 6.25. 무주읍 서면, 안성면 두문 / 7.1. 적상면 치목 / 7.2. 설천면 호룡마을)을 위해 대진과 전주, 영동을 출발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참가 외국인 선수들에게는 특별히 무료농촌관광투어(6.25.~30.)의 기회가 주어진다.

/무주=전문선 기자



## 태권도원, 각국 선수단 열기로 후끈

### 30개국 300명 선수단 훈련장에서 대회 준비 한창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3일 남겨둔 현재, 태권도원은 각국 대표선수들이 속속 도착하며 훈련과 네트워킹 형성 등 전 세계 태권도인의 열기로 가득 차 있다.

21일 현재,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위해 이탈리아·불가리아 대표팀 등 30여개국 300여명의 선수단이 태권도원에서 훈련 중에 있다. 이들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권도원의 평원관과 나래홀 외에도 무주리조트, 반디랜드 등에서 훈련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태권도진흥재단은 세계태권도연맹·대회 조직위원회와 함께 선수들의 훈련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 대표팀 윤순철 감독은 "태권도인 전용공간이 있다는 것에 감격이다"며 "태권도 중추국인 조국에 태권도 성지가 있어 매우 영광이다"고 했다. 또한, 불가리아 대표팀 박상현 감독은 "태권도원 내 건물들에 '고려, 태백, 금강, 평원' 등 태권도 품새로 명칭을 정하는 등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써 태권도인으로서 매우 자랑스럽다"고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개최

장수군은 21일 오전 11시 군청 회의실에서 '2017년 2분기 통합방위협의회'를 갖고 민·관·군·경이 다함께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 다짐에 나섰다.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읍·면장, 관내 예비군지휘관 등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지속적인 도발 위협 속에서 안보의식을 되새기고 민·관·군·경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서 장수군, 장수경찰서, 군부대는 지역내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 등이 발생시 전지 책임지역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해 통합방위 확립 태세를 다졌다.

또한, 우수 예비군지휘관 표창과 함께 제7733부대 1대대 작전과장의 통합방위의 이해를 위한 작전체계 보고가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전주보호지침의 권영국 나라사랑교육 전문강사로부터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평화통일'이라는 주제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장수군 통합방위협의회 의장 최홍득 군수는 "안보위협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각종 훈련 및 시책에 기관·단체에서 보여준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에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통합방위를 위해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용담호 환경대학 수료식

진안군 용담호 환경대학 수료식이 21일 환경대학 졸업생과 용담호 수질개선 주민협의회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2009년 진안군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처음 시작해 올해로 9회를 맞이한 용담호 환경대학은 매주 수요일 6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올해도 45명의 환경대학생을 배출하게 됐으며, 현재까지 총 414명의 환경리더를 양성해 냈다.

올해 환경대학 과정은 환경분야 교수와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용담호 수질관리의 필요성과 실천사항, 비용담보 비점오염원관리, 야생 동·식물피치법, 저수지 수질관리, 금강순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가뭄피해 줄이는 대책 추진 만전

### 상황관리본부 운영·대형관정 개발 등... 밭기반 정비 사업 5개소 준공단계

무주군이 극심한 가뭄으로 물살을 얇고 있는 지역을 살리고 시름에 잠겨있는 농심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 한해대책 상황관리본부를 운영 중인 무주군은 가뭄상황과 저수지 저수율 및 수리시설 정상 작동 여부와(고장신고 즉시 처리반 운영), 농경지 물 부족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무주읍을 비롯한 6개 읍면(14곳) 지역에 농업용 대형관정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비 7억 원을 확보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00여 만 원의 예비비도 확보해 하상굴착장비와 살수차를 지원 하는 등 농업용수 공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무주군청 건설교통과 백기종 농촌개발 담당은 "우리 군의 최근 2개월간 평년대비 누적강수량은 56.6%, 저수율은 68%로 주의단계"라며 "가뭄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유 장비를 총동원해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용수가 제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군이 24억 6,000만 원을 들여 부남면 대티지구와 적상면 상가지구, 설천면 장덕지구, 안성면 읍지지구, 무풍면 부흥지구 등 5개소(83ha 규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밭기반 정비 사업은 현재 준공단계로 용수공급이 가능해져 가뭄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종이팩·화장지 교환

장수군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종이팩을 모아오면 종이팩으로 재활용한 화장지로 교환해주는 사업으로,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등을 읍·면사무소에 가져오면 친환경 화장지로 교환해준다.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건조한 종이팩 200mL 50개, 500mL 25개, 1,000mL 15개에 친환경화장지 각각 1개로 교환가능하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군, 함께 우량종자 '수지' 시범사업 추진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성수면에 함께 우량종자 및 신기술 투입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성수면 함께 작목반 32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4월 파종하여 5월에 10.6ha 정식을 완료해 안정적으로 생육하고 있다.

이번에 재배하는 참깨는 '수지'라는 신종으로 내도복, 다작과성 다수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참깨는 타 작물에 비해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아 수량에 따라 농가소득이 좌우되는 대표작물로 우량종

자와 다수확 재배기술 보급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기존 재배법 두 줄 직파재배가 아닌 육묘이식 및 수광율을 높이는 한줄 재배 방법으로 고품질 다수확 참깨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직파재배에 비해 포트를 이용한 육묘이식 재배는 꼬투리가 달리는 부위가 낮아 수량이 증대되며 도복에 강하고 숙음작업이 수월한 장점이 있으며 육묘를 통한 숙기조절이 가능해 2기작 재배나 하우스 후작 재배도 가능하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마을만들기 대학 개강 11월까지 진행

2017년도 진안군 마을만들기 대학이 21일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수강생 30여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개강했다.

진안군 후원을 받아 진안군마을만들기지구협의회에서 주최하는 마을만들기 대학은 올해 11번째를 맞았으며 마을사업 지구의 리더는 물론 지역

활동가와 주민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마을만들기 대학은 '협동조합의 이해'라는 주제로 6월부터 11월까지 13회차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21일은 '협동조합의 원칙과 발생 배경'이라는 주제로 교육을 시작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19° 375ml  
 Jinan Gowsam Ginseng Wine

AUTHENTICATION CERTIFICATE of Quality  
 진안홍삼연구소가 검사, 관리하고 진안군이 품질을 인증한 제품에만 사용되는 마크입니다.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Gow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